

#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Child's Perceived Marriage Conflict, Mother's Parenting and Child's Behavior Problems on Child Abuse

이 경 님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Lee, Kyung-Nim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ceived marriage conflict, mother's parenting and child's behavior problems on the child abuse. The sample consisted of 428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Several major results found from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re the child perceived the parent's marriage conflict, the mother's parenting was controlling and the child's behavior was externalized, the more the child was subjected to the physical and verbal abuses. The mother's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had a first direct influence on the physical abuse, and the marriage conflict on the verbal abuse. Second, the marriage conflict had direct and indirect positive effects on the physical and verbal abuses through the mother's aff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and the child'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ird, the mother's controlling parenting had direct and indirect positive effects on the physical and verbal abuses through the child'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nd mother's affective parenting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the physical and verbal abuses. Fourth, child'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the physical and verbal abuse. Fifth, child's sex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physical and verbal abuses through mother's aff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That is, boys were more exposed to the physical and verbal abuses, because mothers more controlled and less affected boys than girls.

**Key words** : marriage conflict, mother's parenting, child's behavior problems, child abuse

### I. 문제의 제기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 의해 보호와 지지를 받으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동에게 양육과 사회화과정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부모로부터 바람직한 양육과 지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아동학대이다(Shaffer, 1999).

아동학대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 모든 사회에서 존재하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가정의 사회적 문제로 거의 은폐되어 있었다. 그런데 1962년 Kempe가 동료들과 함께 '피학대아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을 발표한 후 사회적인, 학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고된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아동학대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전국적인 가족표본에서 아동들의 약 11%정도가 부모로부터 맞고, 차이고, 심지어 칼이나 총 등의 위험한 흉기로부터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Wolfner & Gelles, 1993).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이 강화되고 2001년 '1391(아동학대 신고전화)'의 설치 후, 그 발생건수가 1999년 835건, 2000년 975건이던 것이 2001년 2,105건으로 급증하였다(보건복지부, 2002a).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양적 증가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학대받은 경험이

Corresponding author : Lee, Kyung-Nim  
Tel : 051) 200-7306  
E-Mail : knlee@daunet.donga.ac.kr

아동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학습장애,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대인관계불안 및 또래관계와 사회관계의 어려움 등을 포함한 인지적, 사회, 정서적 부적응의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높다(Bagley, 1995; Trickett & McBride-Chang, 1995). 학대받은 경험은 청소년기의 비행, 반사회적 행동 및 우울, 불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Sternberg et al, 1993), 성인이 되어 가정 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범죄, 우울 및 여러 사회, 심리적 문제에서도 평균 이상의 발생가능성을 보인다(Malinovsky-Rummel & Hansen, 1993). 또한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학대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달 등 큰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Kaufman & Zigler, 1989; van IJzendoorn, 1992). 이처럼 아동학대는 아동 개인적으로 다양한 부적응문제를 야기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해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연구는 절실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부모특성 및 가족환경변인에 관한 연구들(김혜영, 1990; 원지영, 1999)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특성을 검토한 연구들(임현진, 1995; Belsky, 1995)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에 의하면 부모특성 및 가족환경 변인으로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특성변인으로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행동문제가 비교적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다. 즉, 부부갈등이 많은 부모의 자녀들이 학대를 경험 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머니의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도 아동학대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허약하고 미숙한 아동들, 공격적이거나 과다행동의 아동들이 학대의 경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많은 연구들에 의해 아동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행동 문제 간에는 의미 있는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더 통제적이며 덜 애정적이고(강차연, 장연집, 1999) 아동의 행동 문제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영옥, 이정덕, 1999),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켜며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강차연, 장연집, 1999; 김선희, 2000).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행동문제 및 아동학대간의 인과 모형을 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포함하는 부모특성 및 아동행동문제와 같은 아동 특성과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은 각각 개별적으로 검증되었으나, 부모특성과 아동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으며 나아가 아동학대에 대한 이들 각 변인들의 관계를 토대로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이들 변인들의 인과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확인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으로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선정하고 아동특성변인으로 아동의 내재화 행동 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아동 학대에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 행동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학대 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 및 아동 지도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애정 및 통제)과 아동의 행동문제(내재화 및 외현화) 및 성이 아동학대(신체 및 언어)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 1-1.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성 및 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 1-2. 아동의 성,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행동문제 및 성간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적 인과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체적으로 학대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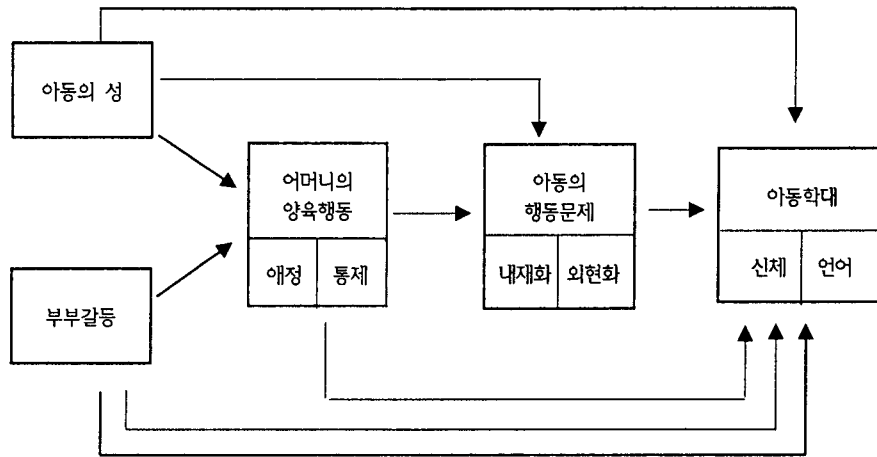


그림 1. 아동학대와 관련변인간의 가설적 인과모형

준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용이하고 구분이 뚜렷한 가시적인 신체적 학대에 대한 연구(김양희, 1995; 권자영, 1991; 이배근, 1993)가 비교적 많았다. 최근에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신체적 학대보다 아동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언어적 학대(Emery, 1989)를 비롯한 정서적 학대(김완선, 1996; 김혜련, 1994; 최정미, 우희정, 2002)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그에 비해 방임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성적 학대에 관한 연구도 드물었다.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이 초기의 연구에서는 단일원인론적 관점에서 설명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원원인론적 관점으로 접근되고 있다. 즉,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부모특성 등 가족환경 혹은 아동특성의 단일변인의 영향에 의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단일원인론적 관점에서 분석되었다(김기환, 1995). 그런데 최근에는 아동학대를 어느 특정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체계적 관점(social system perspectives)에서 부모특성, 가족환경요인, 아동특성 및 주거지역 문화의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Shaffer, 1999).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근원을 주로 아동학대를 가하는 부모특성을 비롯한 가족환경에 두고 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다. 부모의 특성 중 부부갈등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인중의 하나이다. 부부갈등과 아동학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불화와 갈등이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쉽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학대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원지영, 1999),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때 부모가 자신의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다(임지현, 1998). 또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갈등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연, 1999). 이러한 일치된 연구결과, 부부갈등은 아동학대의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환경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아동의 학대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중심되는 두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애정과 통제의 양육행동(송명자, 1995)은 아동의 학대경험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친다. 즉, 통제적 양육행동의 어머니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어머니 보다 신체적 벌을 더 자주 사용하며 권위주의적인 언어적 지시나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하게 된다. 반면 자녀를 수용하고 온정적인 어머니의 자녀들은 학대를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구체적 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배적이고 적의적일수록 아동의 학대경험이 많으며(김혜영, 1990; Mussen, 1979),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통제적으로 반응하는 부모는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고(이주희, 2000) 적대적 훈육태도와 정서적 학대, 통제적 훈육태도와 신체적 학대, 단일한 훈육태도와 방임 간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소희, 1989). 반면 아동에 대한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경향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대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Burgess, & Conger, 1987).

최근에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특성 변인 이외에 피해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부모의 특성만으로는 아동학대발생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며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아동학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성은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원지영, 1999; 임지현, 1998). 언어적 학대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다는 보고(임지현, 1998)도 있으나 남아와 여아가 차이가 없다는 보고(원지영, 1998)도 있고 학대유형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Justice & Justice, 1976)도 있다.

또한 아동의 행동특성이 아동학대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 비해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혀지고 있다. 즉, 활동성이 높거나 부모의 통제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부모로부터 더 강압적인 통제를 받으며(임현정, 1995; Patterson, 1982) 충동적인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처벌이나 강요의 훈육을 더 많이 받는다(Kochanska, 1993). 그리고 정서적으로 비반응적이고, 잘 흥분하며, 허약하고 미숙한 아동들은 학대받게 될 가능성이 더 많으며(Amnerman & Patz, 1996; Belsky, 1993) 자녀의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부모의 훈육방식이 폭력적인 경향을 나타낸다(이주희, 2000). 이처럼 과다행동의 경향이 있거나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혹은 미성숙하거나 위축된 아동들은 이러한 행동문제가 없는 아동들 보다 아동학대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행동문제가 아동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볼 수 있다.

한편,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먼저,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강차연, 장연집, 1999;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에 의하면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부정적이며 덜 온정적이며 체벌을 가하며 강압적인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이에 비해 부부갈등이 적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긍정적,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 또한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방략 등은 아동의 공격성, 과다행동, 미성숙행동, 불안행동과 위축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권영옥, 이정덕, 1999). 그리고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고(변영인, 1995), 내면성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Holden & Ritchie, 1997) 부정적인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Harold & Conger, 1997). 많은 연구들에 의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데 일치되고 있는데,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애정적일수록 정상집단과 임상집단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혼합행동문제가 적었으며, 반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혼합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차연, 장연집, 1999). 그리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통제는 2년 후 이들 아동의 적응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Bronstein et al, 1996),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남아의 자아존중감을 낮게 하여 외재적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지고 있다(김선화, 2000). 이와같이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첫째, 부부갈등, 어머니의 애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성 및 내재화/외현화 행동문제는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성 및 부부갈등은 아동학대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행동문제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학대에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행동문제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가정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행동문제 및 성과 아동학대간의 인과모형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는 공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과 6학년 아동 428명이다. 이들 중 5학년은 224명(52.3%), 6학년은 204명(47.7%)이며 남자는 217명(50.7%), 여자는 211명(49.3%)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 선정 이유는 학대받은 사례건수가 9~11세 아동에서 가장 많다고 보고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02b), 응답해야 할 문항수가 많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아동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36~40세 19.7%, 41~45세 78.6%이며 어머니의 경우 36~40세 58.6%, 41~45세 34.9%로 대부분 36세에서 45세의 범위에 있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 45.9%, 초대졸 이상 41.1%이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 67.9%, 초대졸 이상 32.1%로 나타났다. 아동은 대부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보통 67.5%, 약간 부유한 편 19.8%

로 응답하여 증상류층 이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 2. 연구도구

### 1) 아동학대

아동의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협회(1998)에서 제작한 아동학대척도 중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관한 문항을 기초로 원미영(1999)의 아동학대척도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학대 10문항과 언어적 학대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근 1년간 부모로부터 경험한 사건을 '전혀없음' 1점, '1년에 1~2번' 2점, '1달에 1~2번' 3점, '1주에 1~2번' 4점, '거의 매일'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경험한 학대의 빈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신체적 학대 Cronbach's  $\alpha = .79$ , 언어적 학대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나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 2)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아동행동문제척도를 기초로 김명숙(1994)의 아동의 부적응척도를 참조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형적인 내재화 행동문제로 불안과 위축, 외현화 행동문제로 과다행동과 공격행동을 선정하고 각 행동에 6문항씩 모두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행동문제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두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이 .40을 넘지 않은 2문항은 제외되어 모두 22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첫번째 요인은 11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7.26%를 설명하였으며, '외현화 행동문제'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11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7.23%를 설명하였으며 '내재화 행동문제'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의 3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내재화 행동문제 Cronbach's  $\alpha = .80$ , 외현화 행동문제 Cronbach's  $\alpha = .80$  으로 나타났다.

### 3)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 Seid와 Finchan(1992)이 개발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PIC)'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 수정하여 타당화한 척도 중 갈등성질요인을 나타내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및 내용에 관련된 16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0$ 이다.

###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이 제작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애정적 영역 9문항, 권위주의적 통제적 영역 9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애정적 양육행동 Cronbach's  $\alpha = .92$ , 통제적 양육행동 Cronbach's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2년 12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시에 소재한 2개 공립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14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자들이 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급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뒤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에게 질문지가 배부되고 응답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모두 470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는 제외되어 428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와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문제는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적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아동학대에 대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행동문제와 성의 인과모형 분석

#### 1) 아동학대와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인과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표 1. 아동학대와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성	1							
2. 부부갈등	-.03	1						
3. 애정적 양육행동	.15**	-.24***	1					
4. 통제적 양육행동	-.15**	.41***	-.13*	1				
5. 내재화 행동문제	.07	.54***	-.15**	.36***	1			
6. 외현화 행동문제	-.09	.36***	-.04	.29***	.46***	1		
7. 신체적 학대	-.16**	.38***	-.15**	.46***	.34***	.31***	1	
8. 언어적 학대	-.09	.42***	-.23***	.41***	.33***	.29***	.72***	1
평균	.49	26.48	31.63	17.17	16.65	17.78	12.81	14.80
표준편차	.50	10.28	9.49	6.00	4.08	3.85	3.37	5.58

가변인처리 : 남아 0, 여아 1

\*p&lt;.05 \*\*p&lt;.01 \*\*\*p&lt;.001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동학대,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행동문제와 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와 같다. <표 1>에 의하면 각 독립변인간 상관계수가 .54를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모

형에 따라 각 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아동의 성( $\beta=.13$ ,  $p<.01$ )과 부부갈등( $\beta=-.24$ ,  $p<.001$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8%였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부갈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표 2.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성	2.53	.13**	-1.61	-.13**	.77	.09*	-.60	-.08	-.49	-.07	-3.2E-03	.00
부부갈등	-.22	-.24***	.24	.41***	.19	.46***	.12	.31***	4.800E-02	.15**	.14	.27***
애정적 양육행동					-1.5E-02	-.04	1.909E-02	.05	-3.9E-02	-.11*	-6.1E-02	-.11*
통제적 양육행동					.13	.19***	9.812E-02	.15**	.18	.30***	.19	.21***
내재화 행동문제									6.727E-02	.08	6.427E-02	.05
외현화 행동문제									.11	.13*	.17	.12*
상수	36.19		11.77		9.69		12.74		6.89		5.47	
R <sup>2</sup>	.08		.19		.33		.16		.30		.28	
F	16.43***		46.14***		47.03***		17.72***		26.35***		23.56***	

가변인처리 : 남아 0, 여아 1

\*p&lt;.05 \*\*p&lt;.01 \*\*\*p&lt;.001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아동의 성( $\beta = -.13, p < .01$ )과 부부갈등( $\beta = .41, p < .001$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9%였다. 즉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여아보다는 남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부갈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부부갈등( $\beta = .46, p < .001$ ), 통제적 양육행동( $\beta = .19, p < .001$ )과 아동의 성( $\beta = .09, p < .05$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이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33%였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내재화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중 부부갈등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부부갈등( $\beta = .31, p < .001$ ),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beta = .15, p < .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이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16%였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중 부부갈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beta = .30, p < .001$ ), 부부갈등( $\beta = .15, p < .01$ ), 외현화 행동문제( $\beta = .13, p < .05$ )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beta = -.11, p < .05$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30%였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수록,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애정적일수록 아동은 신체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중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언어적 학대에 부부갈등( $\beta = .27, p < .001$ ),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beta = .21, p < .001$ ),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beta = .12, p < .05$ )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beta = -.11, p < .05$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이 아동의 언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28%였다. 즉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애정적일수록 아동은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중 부부갈등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동학대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 경로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동학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삭제하여 모형을 단순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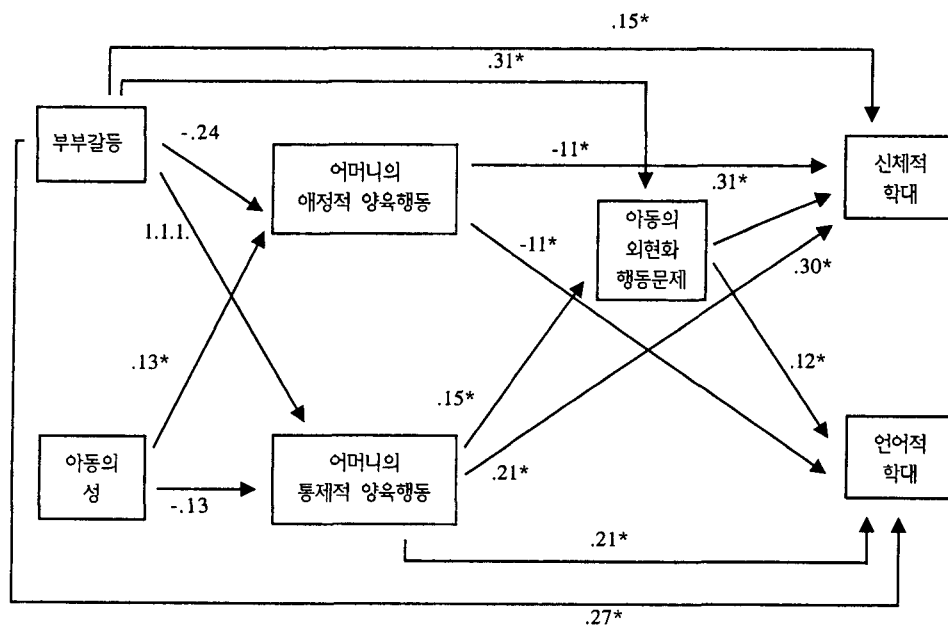


그림 2. 아동학대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 경로분석 결과

<그림 2>에 의하면 아동의 성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각각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부갈등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각각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통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갈등은 아동의 언어적 학대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각각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각각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통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언어적 학대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를 종합하여 보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언어적 학대에는 부부갈등이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의 신체적 학대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간의 경로모형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각 변인들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성의 순으로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

대에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으로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선정하고 아동특성 변인으로 아동의 성과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아동이 경험하는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애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쳐 인과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성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부갈등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부간의 불화가 많은 부모는 그들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전이시키기 쉬우므로 아동은 더 많은 신체적 공격을 경험한다는 연구(김혜영, 1990; 이배근, 1993), 부부관계가 부정적이고 갈등적일 때 가정내의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원지영, 1999; 임지현, 1998)와 일치하였으며,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더 자주 가한다는 연구(이재연, 한지숙, 2003)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배우자가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표 3.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대한 각 변인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의 성	-	-.056	-.056	-	-.041	-.041
부부갈등	.147	.189	.336	.267	.147	.414
애정적 양육행동	-.110	-	-.110	-.106	-	-.106
통제적 양육행동	.304	.019	.323	.205	.018	.223
내재화 행동문제	-	-	-	-	-	-
외현화 행동문제	.125	-	.125	.123	-	.123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때, 아동에게 투사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언어적 학대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정서적인 긴장과 불쾌는 직접적으로 자녀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을 유발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더 통제적이고, 덜 애정적이 되며, 자녀들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더 많아져 아동학대를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더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이라는 연구(강차연, 장연집, 1999),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 과다행동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권영옥, 이정덕, 1999), 충동적이고 과다행동의 아동이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Ammermen & Patz, 1996)에 의해 지지된다. 이처럼 부부갈등은 그 자체가 아동학대의 유발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더 통제적이고 덜 애정적이 되며, 또한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게 하여 다시 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이 많은 부모의 자녀들은 학대받을 위험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각각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경험하는 신체적 학대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제적 양육행동의 어머니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하여 엄격하고 강압적인 방법과 체벌을 자주 사용하므로 신체적 학대의 직접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자녀학대가 많다는 연구(이주희, 2000), 지배적인 양육태도의 부모에게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Mussen, 1979), 통제적 훈육태도와 신체적 학대, 적대적 훈육태도와 언어적 학대의 관계를 밝힌 연구(이소희, 1989)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또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게 하여 아동학대를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애정적 경향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대경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Burgess & Conger, 1987)와 일치한다. 이로써 아동의 신체적 학대 및 언어적 학대와 어머니의 통

제적 양육행동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반면 애정적 양육행동은 부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부모의 특성인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학대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며, 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부부관계와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관한 내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즉 부모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이 아동에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조화롭고 좋은 부부관계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수용하며 잘못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체벌보다는 설득력있는 대화를 사용하는 양육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아동이 경험하는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의 증가에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으로 비반응적이고 과다행동경향이 있고 충동적인 유아들이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Ammermen & Patz, 1996; Belsky, 1993), 자녀의 행동문제가 부모의 학대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이주희, 2000)와 일치하였다. 이는 과다행동적이고 공격적인 외현화 행동문제의 아동은 학대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부모들이 공격적이고 과다행동경향의 자녀들에 대해 다루기 힘들어하며, 자주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위축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겉으로 뚜렷하게 표출되지 않는 불안과 위축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부모로 하여금 뚜렷하게 드러나는 외현화 행동문제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양육행동이나 체벌을 자주 사용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허약하고 미성숙한 아동들이 부모들의 폭력대상에 쉽게 노출된다는 연구(Belsky, 1993)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학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남아에게 더 통제적이고 덜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므로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

아보다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며 (임지현, 1998; 이소희, 1990) 신체적 학대는 남아가 더 많이 경험하나 언어적 학대는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원지영, 1999)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대체로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서 부부갈등,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 및 언어적 학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특성과 아동의 개인 특성들 간의 인과모형을 탐색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부모특성, 아동특성 및 사회문화적 요인 등 사회체계적 관점으로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맥락변인이 좀 더 폭넓게 포함되어 이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아동학대를 초래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일반가정 아동이 연구대상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연구대상이 표집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이 더 많을 수 있는 가출아동, 요보호아동, 임상증례에 보고된 아동 등이 포함되어 아동학대의 실태 및 관련변인에 관한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관련변인의 가설적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횡단적 접근으로 이를 검증하는데 그쳤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종단적 접근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 :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행동문제, 아동학대

## 참 고 문 헌

- 김기환(1995).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승을 단절시키는 생태학적 변인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2, 28-45.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위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완선(1996).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희(1995). 가출아동의 신체적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련(199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영(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가출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영옥,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78.
- 박소연(1999). 부모의 갈등, 양육태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부산 : 아동학대예방법협회(1999). 가정폭력 방지법과 아동학대.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부산지회.
- 변영인(1995).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와 일탈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2a). 아동복지사업지침.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2b).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원지영(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배근(1993). 한국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희(1989).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연, 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라 아동학대 실태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 장차연 · 장연집(1999).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5.

- 이주희(2000). 아동 및 부모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현(1998). 아동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현정(1995). 부모의 피학대 경험과 아동학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5). 아동의 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12.
- 최정희, 우희정(2002) 아동에 대한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225-235.
- Ammerman, R.T., & Patz, R.J (1996). Developments of child abuse potential : Parent and child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 300-307.
- Bagley, C. (1995). *Child sexual abuse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and adults*. Aldershot, England : Ashgate Publishing Company.
- Belsky, J.(1993) Ethology of child maltreatment : A developmental 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413-434.
- Bronstein, P., Duncan, P., Da 'ri, A, Pieniadz, J., Fitzgelald, M, Abrams, C.L., Frankowski, B., Firando, O., Hunt, C., Oh Cha, S.Y.(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45, 415-426.
- Burgess, R.L. & Conger, R.D.(1987). Family Interaction in Abusive Neglectful and Norm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47, 1163.
- Emery, R.E. (1989). Family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44, 321-328.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M., & Wierson, M.(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 families :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Conger, R. D.(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2), 333-350.
- Holden, G. W., & Ritchie, K. L.(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a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Kaufman, J., & Zigler, E. (1989).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In D. Cicchetti &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 and consequ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129-15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
- Kochanska, G.(1993). Toward a synthesis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in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4, 325-347.
- Malinosky-Rummel, R. & Hansen, DJ (1993).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Bulletin*, 114, 68-79.
- Mussen, P., N.(1979).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Prentice Hall.
- Patterson, G. R. (1982). Mother :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
- Justice, B., & Justice, R. (1976). *The Abusing Family*. New York : Human Science Press.
- Shaffer, D.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5th),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 Stenberg, K. J., Lamh, M.E., Greenbaun,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Krispin, O., & Lorey, F. (1993). Effe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4-52.
- Trichett, P.K., & McBride - Chang, C. (1991). The developmental impact of different forms of Child abuse and neglect. *Developmental Review*, 15, 311-337.
- Van IJzendoorn, M.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 76-99.
- Wolfner, G.D., & Gelles, RJ (1993). A profile of violence toward children : A national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17, 199-212.

(2003. 12. 20 접수; 2004. 02. 05 채택)